코로나 극복, 통도사·쌍계사 보살계 눈길

4월 16~18일, 보살계 수계산림 원만 회향

야외 법석 및 거리 띄우기
비대면 온라인 법회 진행
청정계율 및 보살도 강조
인재불사위한 장학금 전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에서 연비의식을 진행 중인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 모습.


비대면으로 4월 16~18일 3일간 진행된 쌍계사 보살계 수계산림 모습.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해 모든 행사가 취소되거나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보살도를 서원하고 계를 받는 보살계 수계산림이 비대면으로 진행돼 눈길을 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불기 2565년 보살계 수계산림' 을 봉행했다.

보살계 수계산림 입재식에서 주지 현문 스님은 무엇보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강조했다.

현문 스님은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 보살계 수계산림을 취소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지만, 올해는 철저한 방역과 준비로 보살계 수계산림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불자들의 협조 속에 법회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통도사는 16일 오전에만 법회를 봉행하고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거리띄우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 하며 행사를 마쳤다.

아울러 연비를 받는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설법전 앞마당에 의자를 두고 야외서 수계 연비를 받도록 하는 등 철저한 방역으로 만전을 기했다.

통도사는 연비 및 계첩 수여에 앞서 인재불사를 위한 장학금 전달과 함께 매년 수계산림에 동참하는 불자들을 격려하는 성만패 및 메달 수여식을 진행했다.

영축총림 장학금은 박사과정 3명, 석사과정 12명, 학사 12명, 승가대학원 및 율원 학림 19명, 승가대학 4명 등 총 50명의 스님에게 총 4300만 원이 전달됐다. 장학금은 영축율학승가대학원 금린 스님과 통도사 승가대학 혜공 스님이 대표해 받았다.

아울러 수계차수 10회, 15회, 20회, 30회에 해당하는 불자들에게 성만패 또는 메달이 전달됐다. 이번해 수계산림에서는 30회 3명, 25회 2명, 20회 11명, 15회 22명, 10회 29명 등 총 66명의 불자들이 성만패와 금색가사, 메달 등을 받았다. 30회 동참자는 박선숙(선심행), 문선희(연화성), 장금수(안심행) 불자다.

이와 함께 **쌍계총림 쌍계사**(주지 영담)도 보살계 수계산림을 비대면으로 봉행했다.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경내 팔영루와 금당에서 열린 '불기 2565년 신축년 보살계 수계산림' 은 산중 스님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으로 봉행됐다.

쌍계사는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행사를 최대한 축소하고 괘불이운, 영산재, 정대불사도 올해는 취소했다.

전계대화상 덕민 스님은 십중대계와 사십팔경구계를 설하며 "수계제자들이 계를 받아 보살도를 실천하고 계를 지키며 자비 실천으로 공덕을 쌓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영담 스님은 온라인으로 참석한 재가불자들에게 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주지 영담 스님은 "코로나 19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역으로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하게 됐다"며 "비대면으로 진행해 불자들을 만날 수 없고 정대불사 등 중요행사를 취소했다. 코로나 19가 어서 소멸되고 여법한 법회를 봉행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동련, "환경 위한 나비대원 되세요"

저탄소 생활 및 쓰레기 제로 실천 프로젝트

탄소저감 생활 실천 강조
환경일기장 공모 등 진행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신공)이 저탄소 생활과 쓰레기 제로 실천 프로젝트 '나비의 그린라이프 스토리' 를 진행하고 참가할 대원을 모집한다.

'나비의 그린라이프 스토리(나는 지구의 비상구)' 는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공모사업 '2021년도 불교시민사회단체 사업 공모' 에 선정된 프로젝트다. 저탄소 생활과 쓰레기를 없애는 삶을 실천하며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나비는 '나비효과' 에서 따온 이름으로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징이다.

'나비의 그린라이프스토리' 에 참가할 나비대원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살피고 '나비의 그린라이프 스토리' 라는 환경일기장을 작성하며 구체적인 환경운동방법을 배운다.

동련은 매달 '나비효과를 부르는 실천과제' 를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실천과제는 △세계생물종다양성보존의 날 플로깅 및 분리수거 △환경의 날 주제에 맞는 피켓 만들기 △초복, 중복 '세계 인구의 날, 고기 없는 날' 소소한 밥상 시상 △에너지의 날 탄소발자국 줄이기 캠페인 △자원순환의 날 환경메이커활동 등이다.

동련은 나비대원 신청자에게 대상별 환경일기장을 보낼 예정이며 참가자들은 추후 환경일기장 공모전에 참여가 가능하다.

동련은 대상 50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연령별 활동을 소개한다. 나비대원은 7세 노랑나비, 초등학생 흰나비, 중학생 호랑나비, 고등학생 부처나비로 구분해 활동한다.

활동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로 모집인원 중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1기 나비대원 100명을 선정해 봉사시간 8시간을 수여한다. 참가방법은 사단법인 동련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051)851-0853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가야법보선원, 개원 2주년 법회



가야법보선원(주지 구담)은 4월 16일 경내에서 '가야법보선원 개원 2주년 기념 법회' 및 '원순 스님의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화엄경〉 번역 불사 입재식' 을 봉행했다.

주지 구담 스님은 "그동안 수많은 경전과 선어록을 편찬하고 번역하였던 원순 스님이 방대한 〈화엄경〉 번역 작업에 매진하고자 한다"며 "특히 〈화엄경〉 간행 불사의 첫 결과물로 '보현행원품' 독송본과 사경본을 먼저 선보인다. 평소 난해함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화엄경〉을 많은 불자들이 쉽게 수지 독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가야법보선원은 부산의 번화가의 중심지인 서면에 위치한 도심 포교당이다. 가야법보선원은 개원 후, 지도법사 원순 스님의 원격 화상법회로 비대면 포교를 진행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정진으로 결실 맺은 반가사유상 점안

진주불교회관, 4월 17일 점안법회
2000일 〈법화경〉 독송
정진 회향불사로 진행


진주불교회관은 4월 17일 회관 2층서 반가사유상 점안법회를 개최했다.

〈법화경〉 독송으로 정진을 이어 가고 있는 진주불교회관이 반가사유상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진주불교회관(이사장 홍수승)은 4월 17일 회관 2층에서 반가사유상 점안법회를 개최했다.

진주불교회관은 법화경 독송회를 구성해 코로나 기간에도 〈법화경〉 독송 정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반가사유상 점안법회는 2000일 〈법화경〉 독송 회향 불사로 진행됐다.

법회에는 보선 스님, 성각 스님, 법화경 지도법사 지산 스님, 홍수승 진주불교회관 이사장, 박해덕 경남포교사단 단장, 안정임 진주불교회관 부이사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홍수승 진주불교회관 이사장은 "코로나란 재앙이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시기, 진주불교회관 불자들의 흔들림 없는 정진 결과가 반가사유상 점안"이라며 "가야불교대학 강의실에서 반가사유상을 조성하기로 서원을 세우고 이루어진 뜻깊은 날"이라고 말했다.

진주불교회관은 〈법화경〉 독송 1000일 기도를 진행한 2020년 11월 7일경 반가사유상 조성을 발원했다. 그동안 불사에는 스님을 비롯해 총 121가구의 재가불자들이 동참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표충사, 제555회 사명대사 춘계 향사



밀양 표충사가 사명대사 춘계향사를 봉행하고 호국불교의 정신을 기렸다. 표충사(주지 진각)는 4월 19일 경내에서 '제555회 호국대성 사명대사 춘계향사' 를 봉행했다.

향사는 △삼귀의례 △반야심경 △종사영반 및 헌다 △내빈소개 및 헌화 △유교제향 △석전의례 △추모사 △봉행사 △공지사항 △사홍서원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향사에는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 법선 스님, 인산 스님, 보화 스님을 비롯해 황걸연 밀양 의회의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주지 진각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임진왜란 당시 많은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이겨냈다. 지금도 통일과 코로나 극복 등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